



## 하나의교회

### & 그루터기 선교회

(윤창로 목사 & 박윤숙 사모/선교사)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랜기간 선교지에서 섬기다가 한국에서 2020년 5월, 코로나 시기 남양주 평내동에서 '하나의교회'와 그루터기선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목회자 부부입니다.

저(박윤숙)의 WMU와의 인연은 2009년 학부 편입으로 시작되어 2024년 6월에 MACP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후 WMU에서 계속해서 상담학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 교회개척은 도전이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옆 상가들에 줄줄이 있는 교회들이 넘쳐나는데 왜 또 교회를 해야 하는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교회는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을 위한 곳이다"라는 깊은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확인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숫자와 상관없이 저희 부부 우선적으로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할 때 그루터기선교회 산하의 작은영어도서관을 열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남양주시의 인가를 받아 소규모의 도서관을 운영하며 아동들을 만나고 부모님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전도를 꾀하고 있습니다. 한참 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이단문제가 한국을 강타했을 때 도서관 길거리 홍보에서 도서관에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는 다수의 어머니들을 만나기도 하였지만 도서관을 통해서 맺은 열매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작은도서관은 저의 아동사역지입니다. 소수의 아이이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복음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면서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 아동을 위한 영어 뿐 아니라 상담사역을 접목한 성인독서치로나 독서모임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성장교육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기독교에 냉랭해져가는 대한민국 사회에 선한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도서관 사역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짧은 년 수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신실하심 속에 이 작은 공동체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다시금 다집니다. 제자보다 관중(군중)이 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며 아동청소년들이 복음에 전혀 관심 없는 이 시대에 함께 할 사람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장소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가 꼭 필요한 지역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저희의 소식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